

貞男毀節譚의 形成과 社會的 意味

余 世 柱

〈차 례〉

- | | |
|------------------|-------------------|
| 1. 문제의 제기 | 4. 유형적 의미의 사회적 조응 |
| 2. 유형의 형성배경 | 5. 결 론 |
| 3. 유형의 형성원과 형성과정 | |

1. 문제의 제기

정남훼절담이라고 하는 하나의 서사적 유형은 많은 문헌 설화를 비롯하여 판소리와 소설들에 두루 나타나는 서사양식으로 조선시대의 서사문학사 위에 하나의 전형을 형성하고 있다. 여색에 초연하고자 했던 양반이 다른 어떤 남성과 공모하거나 그에게 사주받은 기녀의 계략에 유혹되어 훼절당하고, 기녀의 또 다른 계략에 빠져서 웃음거리가 되는 망신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 그 핵심내용이다. 여색에 초연하고자 했던 남성, 즉 정남이 기녀가 꾸민 계략에 의해 훼절·망신당하는 이야기가 핵을 이루므로 貞男毀節類型이란 명명이 타당성을 갖게 된다.

유형이란 일련의 작품군에 나타나는 양식적 동질성이며, Riegl의 말처럼 “양식이란 한 시대의 여러 작품에 나타나는 일반적 공통성을 한정함으로써 도달되는 일반화와 추상화”¹⁾라 한다면 어느 서사유형이든 일정한 유형구조의 추출을 가능하게 한다. 유형구조는 다양하게 개별화되어 있는, 다수 작품의 서사적 줄거리를 일반화하고 추상화하여 추출된 서사적 전개 논리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남훼절담 형식의 서사문학은, <(가) 어떤 양반이 여색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한다. (나) 입장이 다른 어느 남성이 기녀와 공모하거나 기녀에게 사주하여 그 양반을 훼절시키

1) Svetlana and Paul Alpers, Criticism in Literary Studies and Art History, Edit ed., by Ralph Cohen, NEW DIRECTIONS IN LITERARY HISTORY (London, Routledge & Paul, 1974), p. 202.

려 한다. (다) 기녀가 계교로써 양반을 유혹하여 궤절시킨다. (라) 여색에 침혹된 양반이 기녀의 또 다른 계략에 의해 망신과 곤욕을 당한다.>라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²⁾

이러한 정남궤절담의 구조는 설화·판소리·소설에 이르기까지 공유되어 있는, 정형화된 형식이라는 점에 주목해 볼 때 상당한 기간에 걸쳐 꽤 인기있게 정착되어 있었던 유형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에 있어서 개별작품은 거듭해서 논의되어 왔지만, 유형 전반에 관한 본질 규명과 위상 정립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정남궤절 소설의 개별적 작품론은 일일이 예거할 수 없을 만큼 일찍부터 누적되어 왔으며, 이에 따른 연구의 성과도 집적되어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유형론의 차원으로 시각을 확대해서 연구를 시도한 업적은 그렇게 많지 않다. 개별작품론은 주로 작품 내적 구조의 해명에 관심을 두고 작품의 풍자구조적 성격을 논증하거나 근원설화를 탐색하는 데에 주목해 왔으므로, 정남궤절 유형의 서사문학 일반이 갖는 기본적인 성격과 의미를 규명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개별작품론이 갖는 이러한 한계 극복의 일환으로 최근에 와서 유형론적 차원의 연구들이 속출되고 있는 것은 연구사가 나아가야 할 지당한 방향이다. 즉, 김종철은 유형이 지닌 작품 내적 구조와 웃음의 성격에 따른 풍자의 정도 및 작자·독자층을 밝히고자 했고,³⁾ 박일용은 작품들을 세 가지 묶음으로 나눌 수 있다는 전제 아래 각 양상에 따른 개별 작품의 사회적 의미를 깊이 있게 파헤쳐서 그 변이의 실상을 해명하려고 하였다.⁴⁾ 그리고 필자는 정남궤절 소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해석을 위해서는 설화에 대한 작품 내적 구조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정남궤절 설화가 지닌 유형적 성격과 그 미적 성격은 물론, 유형구조의 의미를 천착하여 유형 일반이 지니고 있는 본질을 규명하고자 한 바 있다.⁵⁾

본고에서는 이러한 성과들을 토대로 정남궤절담이라고 하는 하나의 서사유형을 형성시킨 직접적인 원천을 사회적인 측면에서 탐색해 보려 한다. 정남궤절 소설의 형성원은 동일 유형의 설화이며, 이 설화들이 공시

2) 여세주, “정남궤절 설화의 유형성과 그 의미”, 어문학 50집, 한국 어문학회, 1989.

5.

3) 김종철, “「배비장전」 유형의 소설 연구”, 관악어문연구 10집, 서울대 국문과, 1985.

4) 박일용, “조선 후기 궤절소설의 변이양상과 그 사회적 의미”, 한국학보 51, 52집, 1988.

5) 여세주, 앞의 논문.

적이면서도 통시적이고 계기적이면서 상대적인 역동관계를 지니고⁶⁾ 설화적 차원의 전승과 아울러 판소리나 소설로도 변용되었을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정남채절 설화가 판소리나 소설로 변용되었을 것이라는 가설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설화에서 정남채절 유형이 정착 내지 고착화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설화의 사회적 형성원은 또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다시 제기된다. 따라서 본고는 정남채절 설화의 소설화가 아니라, 설화에서 이미 고착화된 정남채절 유형의 형성배경과 구체적인 형성원을 사회적 측면에서 해명하고 나아가서 그것이 정형화된 정남채절담으로 형성되는 과정과 유형적 의미구조가 어느 시기의 어떠한 사회구조와 맥락되어 있는가의 문제를 살펴보려고 한다.

2. 유형의 형성배경

설화의 단계에서 이미 하나의 전형으로 정착되고 고착화되어 있는 정남채절담의 존재론적 기반 내지 형성 배경은 설화작품에 나타나 있는 사회상을 살펴봄으로써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지금까지 조사된 정남채절 설화는 9편인데, 설화는 대체로 서술이 상세하지 않고 간략한 일화적 성격을 띠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므로, 9편 모두에 당시의 사회상이 분명하게 투영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회상이 조금이라도 반영되어 있는 몇몇의 작품을 통해서 정남채절 설화가 기반을 두고 있는 당시의 사회상을 충분히 읽어낼 수 있다.

정남채절 설화에는 조선조 당시의 수창기제도로 인하여 야기되는 양반관료 사회의 향락적 현실 생활이 잘 반영되어 있다.⁷⁾ 그럼 우선 靑野談藪의 「長城府有妓蘆花」를 주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

성종때 장성부에 노화라는 기생이 있었는데, 미모와 재주가 뛰어나서 읍재가 침

6) 설화장르의 전승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천혜숙의 “전설의 신화적 성격에 관한 연구”(계명대 박사학위논문, 1987)에서 명쾌하게 설명되어 있다.

7) 박일용은 “채절담 소설들은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조선 후기 관료들의 향락적인 타락한 생활을 반영하여 형성된 것”이라 간파한 바 있다. 그러나 기생과의 향락생활이 구체적으로 어느 시대부터 어떠한 제도에 의해 야기되고, 구체적으로 향락생활의 어떠한 모습이 정남채절담이라는 하나의 문학적 구조물로 형상화되어 있는가 하는 점을 집약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 박일용, 앞의 논문 참조

혹하며 빈객들로 하여금 놀기에 팔려 객지에서 오래 머물게 하니 읍의 큰 폐단이 되었다. 어사 노아무개가 남도지방으로 가는 날에 노아를 장삼하는 것으로 임무를 삼으니, 이 소문을 미리 들은 읍재가 식음을 폐하고 눈물만 흘리니……⁸⁾

한읍에 소속되어 있는 娼妓에게 그곳 지방관은 물론 찾아오는 賓客들까지 침혹되어 큰 폐단이 되고 있다는 것인데, 그 폐단을 다스리려 간 御史가 오히려 그 기녀에게 속아 관계를 맺음으로써 임무 수행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돌아가 버렸다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진다. 여기서 당대 양반 관료들의 호색적 향락생활이 잘 반영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인용 문맥으로 볼 때, 폐단이 되고 있는 것은 호색적 향락 생활에 빠져 있는 양반 관료들의 개인적 윤리의식의 不在나 당시의 제도적 장치가 아니라, 미모와 재예가 뛰어난 娼妓 때문이라는 안식이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폐단은 양반 관료의 개인적 윤리의식의 不在 또는 守廳妓制度라고 하는 조선조 당시의 제도적 장치 자체에 근본 원인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기에게 책임을 전적으로 전가시키는 사고방식은 문제의 본질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이러한 편파적 현실 인식은 당대의 특권 계층인 양반 관료들의 철저한 자기옹호적 사유의식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어쨌든 이 이야기의 이러한 목소리 뒤에는 분명 수정기제도의 폐단이 반영되어 있음을 읽을 수 있다. 수정기제도 그 자체의 폐단은 당시 조선조 사회의 일각에서 빈번하게 문제시되었는데, 창기혁명에 대한 논란이 여러 번 제기된 사실이 이를 입증해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기제도의 폐지는 결코 실현되지 못했으니, 수정기제도는 결국 조선 오백년동안 계속 존속되고 있었던 셈이다. 가령, 태종 10년에 전국의 창기를 폐지하라는 왕명이 있었으나 河崙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했으며, 세종 때에도 이러한 논의가 일어났으나 許稠의 반대로 끝내 폐지되지 못했던 것이다.⁹⁾ 이처럼, 조선 초부터 창기 폐지에 대한 논의가 여러 번 있었지만 끝내 실현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 보다도 당시 대부분의 양반 관료들이 기녀와의 향락적 생활에 깊이 관련되어 있었던 실태를 말해 준다. 당시 관료들

8) 成廟時 長城府에 有妓蘆花키니 色貌才藝! 冠一世키야 邑宰沈惑키며 使客留連키니 大爲一邑之弊라. 御史盧某南下之日에 以杖殺蘆兒로 爲己任키니 先聲이 遠播날 邑宰聞之키고 廢食流涕호니……. 以下の 정남해절 설화의 자료인용처에 대해서는 필자의 “貞南殿節說話의 類型性과 그 意味”(語文學 50집, 한국어문학회, 1989)의 자료목록을 참조할 것.

9) 李能和, 朝鮮解語花史, 翰南書林, 1927, p. 211.

의 지나친 타락 생활로 공적인 일까지 그르치는 경우도 있어서 해당 관료들이 論罪되는 사례가 수없이 많았다는 사실¹⁰⁾도 이러한 실태를 지적해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폐단 때문에 세종은 大小使臣들이 官妓를 姦하지 못하도록 수교를 내렸다는 기록을 세종실록에서 찾아 볼 수 있고, 관원은 거녀를 간할 수 없다고 경국대전에도 명문화되어 있다.¹¹⁾ 그러나 이러한 禁令은 표면화된 명문에 불과하였으며, 실제로 관기는 공적인 소유물이라는 관념이 당시 사대부들의 지배적인 사고방식으로 굳어져 있었다. 양반 관료들의 이같은 사고 방식은 세종 때 고을의 창기 폐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때, 조선조 禮制를 완성시킨 사람으로서 당연히 찬성할 줄 알았던 허조의 다음과 같은 반론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나 있다.

누가 이런 제책을 실시하려 함니까. 남녀관계는 인간의 큰 욕망이니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읍 창기는 모두가 관청의 물건이니 취하여도 무방합니다. 만일, 이 금법을 엄하게 한다면, 지방에 사신 나간 나이 젊은 조정 관원들이 불의로 사삿집 여자를 탈취함으로써 영웅준걸의 인물이 죄에 빠지게 되는 일이 많을 것이니, 신의 의견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¹²⁾

수청기제도는 그것을 폐지함으로써 야기되는 더 큰 폐단을 없애는 안장치의 구실을 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혁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허조가 내세우는 명분이긴 하지만, 그의 발언은 세종 당시의 時宜를 따른 것일 것이므로 당시 양반 관료들의 창기에 대한 관념과 이로 인한 향락적 타락생활의 보편화 현상을 말해 준다. 수청기제도가 폐지되지 못하고 계속 존속한 사실 자체도 이미 양반관료들의 호색적 향락생활을 단적으로 말해 주는 것이긴 하지만, 당시 양반관료들의 호색적 타락생활은 공공연하게 만연되고 있던 현상이었음은 일일이 예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헌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¹³⁾ 수청기 제도의 폐지에 관한 논란이나 제도의 비판이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대두되었다는 사실¹⁴⁾만으로도

10) 金用淑 “韓國女俗史”, 한국문화사대계 7(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소, 1981), p. 630 참조.

11) 위의 논문.

12) 成俔, 慵齋叢話 9권, 국역 대동야승 I(민족화추진회, 1985)p. 229

13) 李陸의 靑坡劇談이나 成俔의 慵齋叢話 등에서 허다한 기록들을 찾아 볼 수 있다.

14) 柳馨遠의 礪溪隨錄이나 丁若鏞의 牧民心書, 그리고 李肯翊의 燃藜室記述 등에 특히 실랄한 비판이 나타나 있다.

도 수청기 제도로 인한 관료들의 타락생활이 얼마나 심각했던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수청기제도는 지방 수령이나 막료의 향락을 조장하는 것으로써, 지방관리가 기녀에게 침혹되는 타락한 현실은 이미 앞서 인용한 청야담수의 「장성부유기노화」에서는 물론이거니와 蕢葉志諧에 실린 「妓籠藏伯」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李靑翊의 다음과 같은 기록을 주목해 보아도 당시 지방 수령들의 타락상은 분명하게 짐작할 수 있다.

8도 주군(州郡)에 창기가 있으므로 잔악한 백성들이 몇몇하지 못한 길을 통하여 정령(政令)을 더럽히는 일이 매우 많고, 나이 어린 자제로서 타락하여 본성을 상실한 자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으며, 가는 곳마다 관장(官長)들은 음란하고 추한 일을 드러내 놓고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¹⁵⁾

지방관의 타락뿐 아니라, 모든 감영과 州와 府는 물론 郡縣에 이르기까지 창기를 두어¹⁶⁾ 객이 올 때마다 모시게 하던 수청기 제도는 중앙관리로서 특별한 임무를 띠고 지방에 파견되던 使臣들의 타락을 조장하는 폐단이 되기도 했다. 지방에 파견된 임시직 중앙관료의 향락적 타락은 於于野談이나 東野彙輯 등에 실려 있는 정난혜절 설화 「蔡壽·蔡世英」의 일화에서 잘 나타나 있다. 채수가 內翰으로 있으면서 史庫의 서적을 점검하고 거풍시키던 임시적인 포쇄별성으로 전주에 갔을 때 다음과 같이 그러한 폐단을 지적하고 있다.

사대부가 주나 부에 사신 갔을 때, 기녀로 하여금 객사에서 잠자리를 모시게 하여 자못 관계함이 음란하고 더러우니, 먼저 모든 읍에 공한을 돌려 기녀가 빈관에 서 이러한 일을 말지 못하게 하라.¹⁷⁾

이 설화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앙에서 특별한 임무를 띠고 지방에 나간 관료들에게 그 지방수령들이 수청기로 하여금 잠자리를 모시게 하여 유교적 풍속을 어지럽히고 있는 퇴폐적인 현실이 당대 양반 관료사회에

15) 이공익, 국역 연려실기술X(민족문화추진회, 1988중판), p. 604.

16) 縣에는 20명, 郡에는 40여명, 州府에는 60~80명, 監營에는 100~200명 정도의 기녀를 두었다고 한다. 金東旭, 「李朝妓女史序說」, 아세아여성연구 5집, 이화여대 출판부, 1966.

17) 士大夫奉使于州府 使妓女侍枕于客舍 頗涉淫褻 先移文列邑 勿令妓女服事于賓館

만연하고 있던 일반적 현상이었음이 극명하게 반영되어 있다. 조선조 당시의 이러한 사회 현실은 이처럼 작품을 통해서도 짐작해 볼 수 있지만, 앞서 인용한 허조의 말이나, 柳馨遠의 다음과 같은 기록을 또 하나 주목해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금 관청에서 음란한 창기를 기르고, 출장 관원들이 오면 그들을 예쁘게 단장 시키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서 기다리다가, 술을 돌려 권하고 음악을 연주하여 흥을 돋구는데, 이를 이름하여 「방기」(房妓)라고 한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정에 끌리고 욕정에 빠져서 정사(政事)를 해치고 풍속을 문란하게 하며, 본심을 상실하게 되는 자 이루 다 헤아릴 수 없게 된다.¹⁸⁾

여기서는 특히 지방에 파견된 사신들에게 베풀어진 지방관의 향응현상과 이로 인한 중앙 관료의 타락상이 잘 나타나 있는데,¹⁹⁾ 상층 관료에 대한 지방 하층 관료의 향응은 주로 기녀를 통한 연회의 방식이었으며, 당시 수청기제도에 의해 그 정당성이 보장되고 공인된 일반행사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상층 관료에 대한 하층 관료의 향응은 단순히 妓樂을 베푸는 것만으로 그치지지는 않았다. 하층 관료는 창기로 하여금 상층 관료의 잠자리까지 받들게 했던 것이다. 그런 까닭에 호색 향락을 즐겨하는 관료는 은근히 그러한 향응을 기대하는 일이 흔히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은 실제적 현상을 용재총화나 연려실기술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²⁰⁾ 채수의 일화에 반영된 사회상도 바로 이러한 현실의

18) 반계수록, 국역 연려실기술X, p. 603 재인용. 方伯守令이나 奉使之人, 그리고 朝官들의 여색 향락에 대해서는 李能和의 朝鮮解語花史(pp. 41 - 50)에서도 상세히 논급되어 있다.

19) 사신에 대한 지방관의 향응과 이에 따른 사신들의 타락상은 용재총화에도 잘 나타나 있다. “우리 나라 사람으로 외지방에 사신(使臣)가는 자는 관리들이 지경(地境) 내에서 영송(迎送)을 하는데, 먼저 주식(酒食)을 갖추고 준비하였다가 곧(邑)에 들어오면 며칠동안 머물게 하고, 크게 잔치를 베풀어 흠뻑 취하도록 한다. 그리하여 술이 깨어 있는 날이 없으니, 이렇게 하여 병을 얻어 폐인이 되는 사람도 헤아릴 수 없다. 송별할 때에는 경치 좋은 산수를 골라 장막을 치고 소매를 붙잡아 놓지 아니하며, 종일토록 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졸(拙)한 사람은 관의 돈을 없애서 날로 퇴폐해지고, 능(能)한 자는 영리를 하여 자기의 사복을 채우므로 관가(官家)는 날로 쓸쓸해지고, 관리와 백성은 점차 초췌하여 그 괴로움을 견딜 수 없다.” 용재총화 9권, 국역 대동야승 I, p. 213.

20) 용재총화 10권, 국역 대동야승 I, pp. 242-243와 국역 연려실기술X, p. 601 참조.

투영이라 하겠다.

이상에서 정남채절 설화에는 수청기제도로 인한 당시 지방수령이나 지방에 파견되던 중앙관료의 호색적 향락생활이 반영되어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양반 관료의 타락생활은 주로 상층 관료에 대한 하층 관료의 여색 향응의 형식에 기인하고 있음도 짐작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정남채절담 형식은 이와 같은 양반관료들의 향락적 생활을 배경으로 형성되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수청기제도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관료들의 향락적 타락생활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 보편화된 현상만은 아니다.²¹⁾ 이미 조선 전기부터 심각하게 대두된 사회적 병폐였다. 태종이나 세종 때에 이미 창기혁파에 논란이 거듭 있었던 사실이나, 성종 때 성현이 찬술한 용재총화에 이러한 사회 현실이 비판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양반관료들의 향락적 타락생활은 이미 15, 16세기부터 흔히 문제시되어 온 현상임이 입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남채절 설화의 존재론적 기반은 조선 전기에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고 하겠다. 정남채절담은 조선 전기의 사회현실 구조에서 이미 배태되기 시작한 문학적 구조물인 것이다.

3. 유형의 형성원과 형성과정

정남채절담은 수청기제도로 인한 양반 관료들의 호색적 향락생활을 형성배경으로 삼고 있지만, 이러한 생활 모습을 그대로 문학적 구조로 형상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호색적 향락에 빠져 있는 양반관료들의 타락상이 작가, 즉 설화자가 그려 보이려고 한 세계의 핵심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정남채절 유형은 구체적으로 당시의 어떠한 사회현상을 문학적 구조물로 형상화하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는 정남채절 설화의 인물관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해명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명이 곧 정남채절 유형의 직접적인 형성원을 탐색하는 길이다.

정남채절 설화에는 아무리 간단한 이야기라 하더라도 적절한 채절의 대상과 실제적으로 채절을 모의하는 인물과 속임수의 수단이 되는 기녀

21) 박일용은 앞의 논문에서, 관료들의 향락적 생활이 보편화된 것은 중세적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조선 후기 이르러서였다고 하면서, “채절담 소설들을 조선 후기 관료들의 향락적인 타락한 생활을 반영하여 형성된 것”이라 했다. 앞의 논문 p. 102-103.

가 기본적인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²²⁾ 이러한 기본적인 인물설정과 그 관계 양태를 사회적 측면에서 조명해 보면, 정남훼절담이라는 정형화된 서사유형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회적 상황의 형상물인가 하는 문제가 해명될 수 있다.

그런데 정남훼절담, 특히 「배비장전」의 사회사적 형성원에 대해서 관인사회의 入社(initiation), 즉 新參禮의 의식에서 찾으려는 선행연구가 있어서 일단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권두환은 「배비장전」을 조선시대의 관인사회에서 만연했던 신참례 의식과 관련하여 해석하면서, 「배비장전」은 이 신참례를 반영한 작품이며 동시에 동계에 속하는 정남훼절담의 형성 역시 이 신참례에서 찾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²³⁾

그러나 권두환의 이와 같은 주목할 만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정남훼절담의 형성 원천은 신참례 의식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신참례 의식은 고참자가 신참자의 호방한 예기를 꺾고, 상하의 등분을 엄하게 하

그들로 하여금 규칙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곤욕을 치루게 하는 풍습으로²⁴⁾ 정남훼절담이 보여 주는 인물관계와는 상당한 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남훼절담은 고참자에 의한 신참자의 훼절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정남훼절 설화의 각 편에 나타나 있는 훼절의 대상 인물은 성종 때의 어사 노아무개, 세종 때의 어사 이현로, 포패별성 채수, 경차관 노아무개, 순안어사 등 특별한 임무를 띠고 중앙에서 지방으로 파견된 使臣이 5편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반객인 경우가 2편으로 나타나며, 그 외 臺官으로 있다가 새로 부임하는 감사와 평범한 선비의 경우가 각각 1편으로 나타난다. 특별한 임무를 띠고 지방에 파견된 임시직 중앙관료나 지위 높은 반객, 지방의 상층관리 등이 훼절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아울러 이들에 대한 훼절의 직접적인 주체가 하나같이 수청기와 공모한 지방관장들인데, 훼절의 대상보다 신분이 낮은 지방의 하층관리들이 수청기와 함께 상층관리의 훼절망신을 음모한다는 것은 신참례 형식과 관련 지을

22) 여세주, 앞의 논문 참조.

23) 권두환은 「朝鮮時代의 官人社會에서 행해진 新參禮의 變異過程과 그것의 社會的 意味는 주목에 값할 만한 과제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이 과제가 해결되어야만 襄裨將傳과 그 前型들(동계의 설화: 필자주)이 지니고 있는 歷史的 文脈이 뚜렷하게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襄裨將傳」研究, 한국학보17, 일지사, 1979 겨울.

24) 신참례 의식에 관한 여러 형태의 기록들은 연려실기술에 집약되어 있다. 국역 연려실기술X, pp. 273-278

수 있는 어떠한 친연성도 갖지 못한다. 오히려 이러한 형식을 작품에 반영되어 있는 조선조 당시의 양반 관료사회와 관련지워 볼 때, 그 형성에 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앞에서 충분히 언급해 둔 바 있지만, 지방에 파견된 임시직 중앙관료나 지위 높은 빈객, 감사 등과 같은 상층관료가 지방 관아에 오면 그 지방 하층관료들은 이들에게 수청기를 이용한 여색 향응을 베풀었고, 이러한 향응은 조선조 당시 공공연하게 만연해 있던 현상이었다. 이 경우 향응은 지방관 자신들의 비리 폭로에 대한 일종의 무마책이나 보다 나은 평가를 받기 위한 방편 등 나름대로의 속사정 때문에 베풀어졌을 것이다. 정남채절 설화 중에 채절의 대상인물로 지방행정의 잘못이나 민정을 조사하는 일을 맡았던 어사가 4편에서나 나타난다는 사실을 감안해 보면 이러한 생각을 더욱 굳게 한다. 비록 어사는 아니지만, 포쇄별성의 임무로 지방에 파견된 채수도 수청기 제도로 인한 지방 출장 관원들의 타락적 퇴폐상을 지적하면서 지방관원들에게 창기로 하여금 출장 관원의 잠자리를 받들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보면, 신분 지위상 향응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다. 지방관료이긴 하나 감사의 경우도 중앙에서 파견되어 그 이하 지방수령들을 감찰하는 입장이고 대체로 2년 정도의 임기를 마치고 다시 중앙관직으로 승직되어 갔으므로 향응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인물이다. 이처럼, 상층관료나 빈객, 감사 등이 지방 관아에 오면 그 지방 하층 관료들은 어떠한 이유론든 수청기를 이용한 여색 향응을 베풀었고, 이 때문에 양반 관료들은 쉽게 퇴폐적인 향락에 매몰되어 본연의 임무조차 수행치 못하는 관료가 허다하였다. 한편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 관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정남채절 설화의 구조적 미완성이라 지적해 둔 바 있는,²⁵⁾ 16세기 金安老가 찬술한 龍泉談寂記의 한 일화를 주목해 보자

옛날에 한 재상이 남도에 안찰로 갔는데, 성격이 몹시 엄격하여 사적인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못 고을들이 엄숙한 풍조가 있었다. 화산에 아리따운 계집이 재상과 정이 꽤 두터웠으나 밖으로는 그렇지 않은 듯 담담하게 보였다. 새숫물을 떠오고 소제를 맡아보는 기생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용서하지 않으니 한 고을 기생들이 모두 걱정하였다. 아리따운 계집이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저 늙은의 영감을 한 번 육보일까 보다.”

) 여세주, 앞의 논문.

그래서 결국 안찰사는 화산의 계집에게 속아 넘어가 기생들이 숨어 지켜 보는 가운데 늦대야에 술을 따투어 마시게 되고, 계집에게 흘려서 하등급을 받게 될 고을 원의 등급을 중등급으로 올려 주었다는 이야기다. 實事에 가까운 이 일화에서 “사적인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사로운 정에 이끌리지 않고 안찰사로서의 임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려고 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기생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용서하지 않으니”라고 한 것은 의도적으로 위엄을 부려 보였다는 뜻으로 이해 가능하다. 따라서 이 일화 속의 안찰사는 화산의 기녀와 정이 두터웠다고 했으니, 당시 수청기 제도에 대한 관료들의 일반적 사고방식을 거부하지는 않으면서 위엄스럽게 보이도록 하여 맡은 직무를 엄격하게 수행하려 했던 모범적인 관료다. 그러나 화산의 기녀에게 남 몰래 정을 준 것이 화근이 되어 그 위엄은 무너지게 되고 고을 원의 다음과 같은 부탁을 받은 그 기녀에게 흘러 공정해야 할 政事까지 그르치고 만다.

그 고을 원이 어떤 일로 책망 당할 일이 있어 성적 심사에서 하의 등급을 받게 되었다. 원이 이 계집을 불러 말하기를 “만약 네 힘으로 나의 등급문제를 해결해 주면 한 살림 넘도록 토틈히 보답하마.” 하니, 계집이 감사하여 “마음을 다하여 해 보겠나이다.”하고 대답하였다.

수청기 제도라고 하는 중세적 체제에 긍정적으로 순응하면서 공정한 정사를 처결하려고 했던 평범하면서도 모범적인 관료가 수청기와의 호색에 빠져서 결국 공정한 정사를 그르치고 말았다는 이 일화의 서사적 논리는, 수청기 제도로 인해 야기되는 폐단을 심층의 의미로 간직한다. 양반관료의 위선성과 향락적 타락에 대한 폭로와 비판이 표층에 드러나는 의미라면, 당시 정당시되어 온 수청기 제도가 가져오는 정치적 폐단의 폭로를 심층의 의미로 삼고 있다.

그런데 이 일화는 정남혜절담의 형성원과 형성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 보다 구체적으로 근접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으므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일화를 통해, 공정한 정사를 펴려 했던 상층관리에게 수청기와 공모하여 향응을 베풀고 하층관리 자신의 비리를 무마시키려 했던 사정을 짐작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 하층관리에게는 특별한 잘못이 있든 없든 판제없이 상층관리에게 향응을 베푸는 것이 유리했을 것이고, 이 경우 수청기를 이용한 여색 향응은 당시 제도상 정당성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흔히 이용된 향응수단이었을 것이다.

수청기와 공모한 하층관료가 상층관료에게 여색 향응을 베풀어 신변상의 자기 방어책으로 삼았던 사정은, 용천담적기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宋世琳의 禦眠楯에 실린 「衙巫陷守」에서도 살필 수 있다. 이 일화 역시 정남채절 설화와 유사한 작품으로 구조적인 미완성을 보여주는 과도기적인 것인데, 다음과 같이 시작되고 있다.

남쪽 고을에 어떤 태수가 있었는데, 어쩌나 정사(政事)가 가혹하였는지 이속(吏屬)과 백성들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때 마침 관아에 자색이 배어난 무당이 있었는데, 태수가 좋아하여 내아(內衙)에까지 몰래 불러다가 사통하니 저녁마다 만나지 않는 날이 없고 사랑함이 두터웠다. 어느날 이속들이 우연히 서로 말하기를, “태수의 정사가 말이 아니니 장차 그를 제거할 계책을 세워야 하겠다.”하고 의논하였다. 무당이 마침 엿듣고 “내가 능히 제거할 수 있으리니 무엇으로 나에게 보답하겠소.”하니, 이속들이 이르되 “마땅히 당목 백필로 상을 주겠다.”하고는 굳게 약속하였다.

이렇게 시작하여, 태수는 무녀의 제략에 넘어가 음란한 사랑에 빠져있는 현장이 여러 이속들에게 발각되어 망신을 당하고, 결국 감사에게 파면당했다는 것으로 끝맺는다. 이속들이 衙巫와 결탁하여 가혹한 정치하는 태수를 여색에 빠뜨려 파면되도록 하였다는 풍자성이 농후한 내용이다. 여기서는 수청기가 아니라 관아에 예속된 무녀로 나타나지만 衙巫도 때로 수청기로 귀속되어 창기로서의 구실을 했음을 고려해 볼 때, 하층관리와 기녀가 공모하여 상층관리를 여색에 빠뜨려 회롱하고 정사를 그르치게 하거나 파면되도록 한다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예시한 두 일화의 안찰사나 태수는 모두 정치는 엄하게 하려 했지만 여색을 가까이 한 것이 화근이 되어 결국 정사를 그르치거나 파면되었다. 그러나, 지각있는 관리들은 이러한 여색 향락이 자기 함정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인지하였을 것이고,²⁶⁾ 그래서 의도적으로 여색까지 멀리하고자 했을 것이다. 즉, 지방관들이 배푼 여색 향응이 결국 지방관리의 비리를 묻어 주고 그들과 야합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 온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한 상층 관료는 그러한 자기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고 여색을 의도적으로 멀리했을 것이라 짐작된다. 이 경우, 여색을 멀리하는 자는 윤리의 틀을 고

26) 김안로는 앞에서 예시한 일화 뒤에서 여색 향락이 양반관료들 자신을 그르치게 해치는 것이라고 하면서 여색의 경계를 역설하고 있다. 국역 대동야승Ⅲ, p. 521 참조.

집하는 자라기보다는 부패한 자들과의 야합에 의한 공생을 거부하는 자로 암시되어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²⁷⁾ 따라서, 감찰자의 입장에 있는 상층관료와 지방의 하층관리는 적대적인 관계에 놓이게 되는데, 여색을 멀리하며 야합을 거부하는 상층관료에게 하층관리는 제략으로써 여색향응을 빼돌려 그러한 의지를 무화시키려고 했을 것임은 쉽사리 짐작할 수 있다. 즉, 하층관리는 자신의 비리와 부정을 은폐하기 위해 기녀에게 重賞을 약속하고 상층관리를 여색에 빠지게 하여 망신시키고 결국 임무수행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지방의 하층관료가 자신의 비리와 부정 은폐 내지 단순한 향응을 위한 수단으로, 여색을 멀리하며 공정한 政事를 펴려 했던 상층관료를 속여 여색에 침혹케 하고 망신거리로 만들어 마침내 임무수행조차 공정하게 하지 못하게 했던 것은 조선 초 당시의 실제적 현실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여색을 멀리하며 공정한 정사를 추진하려는 상층관료에게 지방 하층관료가 제략을 써서 빼돌려 여색향응과 이로 인한 상층관료의 채절 및 정치적 타락의 형식이 정남채절 유형의 구체적인 형성원이 되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정남채절담의 형성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은 정남채절 설화로서는 구조적으로 미완성인 앞의 두 일화를 통해서도 증명될 수 있었던 것이지만, 정남채절 설화의 범주에 속하는 청야담수의 「長城府有妓蘆花」에서 보다 확고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지방관료의 호색적 타락생활을 조사하여 다스리러 온 어사가 오히려 여색에 침혹되어 임무도 수행치 못하고 가버렸다는 아이러니컬한 내용이 그것이다. 이 설화에서 어사가 내려온다는 소문이 들려 자신의 비리노출을 두려워한 지방관은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을 흘리며 걱정만 하자, 기녀가 자신의 제책을 말하며 그를 안심시키고 어사를 채절 음모에 빠뜨려 임무수행도 못한 채 되돌아가게 한 것은 이 설화를 더욱 사실처럼 느껴지게 한다. 정남채절담의 형성에 대한 그러한 흔적이 鷄鴨漫錄의 「巡按御史」에서도 잘 드러난다.

옛날 유명한 벼슬아치가 순안어사로 전주에 이르러 스스로 명위만 믿고 교만하고 도만함이 견줄 바 없었으며, 방기를 물리치고 항상 혼자서 잤다. 감사가 부윤과 말의하여 그를 속여 곤욕케 하고자 하여 여러 기생 중 자색이 뛰어난 자를 뽑아
.....²⁸⁾

27) 권두환, 앞의 논문, 앞의 책, p. 124.

28) 昔者 名宦以巡按御史 到全州 自恃名位 驕傲無比 命却房妓 常自獨宿 伯與府君密議

이렇게 사주 받은 기녀는 어사를 속여 궤절·망신을 시켰으며 그 결과 순간어사는 다음 날 “알리지도 않고 가 버렸다.”(不告而走)는 것이다. 엄정한 정치인은 오만하게 보이기 마련인데 그러한 중앙관리가, 기녀를 이용한 지방관리의 속임수에 궤절과 봉욕을 당하고 결국 임무 수행도 못한 채 가버리는 사회적 현상이 설화에 용해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동아 회집의 「差官出櫃裸裡」에서도 그러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

노문관 아무개가 경차관으로 경주에 이르러 망령되이 스스로 교만하고 뜻 높은 체하여 기녀를 보면 邪氣·尤物이라 하며 눈앞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니 여러 기생들이 모두 분해하고 부운 또한 미워했다. 이에 기생들에게 명령을 내려 기묘한 계략으로 차관을 속임 수 있는 자 있으면 중상하리라 하니, 한 젊은 기생이 응모하여 나왔다.²⁹⁾

결국, 여색을 멀리하며 교만스러운 정도로 엄중한 경차관은 이 기녀에게 속아 돌이킬 수 없는 궤절 망신을 당하고 “그날로 도주하여 가버렸다.”(即日逃走而去)는 이야기다. 여기서 상하층 관료의 적대적 감정과, 하층관료에게 사주받은 기녀에 의해 망신을 당하고 임무 수행조차 하지 못한 채 도주해 버린 상층관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전형적인 정남궤절 설화에도 용해되어 있는 바, 상층관료에 대한 하층관료의 계략적 여색 항응과 이로 인한 상층관료의 타락 현상이 정남궤절담이라고 하는 문학적 구조물로 형상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실제적 사회현상은 상층관료의 근엄하기 만한 자세와 준엄한 정치적 이념이 여색에 의해 한꺼번에 무너지게 됨으로써 충분한 서사적 흥미를 지니게 되고, 따라서 笑話의 자료로 채택되기에 충분한 조건을 구비하게 된다. 웃음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이런 류의 事實譚들이 그 자체의 소화적 흥미 요소가 강조, 확대되면서 「양녕대군의 일화」와 같은 것으로 파생되고 아울러 전형적인 정남궤절담으로 형성되었으리라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형성과정을 보다 직접적으로 이해시켜 주는 자료로서 1588년경 權應仁이 찬술한 松溪漫錄의 蔡世英에 관한 일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欲欺而困之 乃選於衆妓中有姿色超絕者……

- 29) 盧文官某 以敬差官到慶州 妄自驕昂 見妓則 必曰 邪氣 曰尤物 不使近前 衆妓齊憤 府尹亦憎之 乃下令於妓輩曰 有能出奇計瞞差官者將施重賞 一少妓應募而出

이 일화는 전형적인 정남훼절담인, 어우야담 소재 「채세영」 설화의 직접적인 소재가 되었을 터인데, 아직 문학적으로 흥미있게 형상화되지 못한 사실譚인 것 같다.³⁰⁾

정덕(正德-명무종(明武宗)의 연호) 기묘년(중종 14, 1519) 무렵에 열읍(列邑)의 기생들을 폐지하였다. 한림(翰林) 채세영(蔡世英)이 포사관(曝史官)으로 성주(星州)에 갔었는데, 엄중히 명령하여 기생을 숙소(宿所)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였다. 당시의 목사(牧使) 김공우(金公佑)는 문음(門蔭)으로 출신하였는데, 호걸스런 선비였다. 몰래 기생 승두추(勝杜秋)를 시켜 매일 저녁 숙소 앞을 지나가며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수일이 지나니, 한림이 창문을 반쯤 열고 고개를 빼고 보고는 소리(小吏)에게 말하기를, “저게 어떤 사람이기에 밤마다 이곳을 지나가는고?” 하니, 대답하기를, “집이 담 밖에 있으며, 교방(敎坊)에 드나드는 길이 이 곳을 지나가 되어 있습니다.” 하였다. 기생이 이 말을 듣고, 거절으로 놀라 달아나다가 일부러 땅에 넘어졌다. 모습이 명미(明媚)하고 의상(衣裳)이 깨끗하였다. 한림이 몰래 소리(小吏)를 시켜 방안으로 끌어들었다. 이 때부터 밤에 들어와 새벽에 돌아가곤 하여 정이 무르익었다. 조정에 돌아가는 날, 목사가 성문 밖에 송별연을 벌이고, 몇몇 기생을 목사 뒤에 앉혀 술을 대우는 심부름을 하는 모양을 하여 한림과 상대하도록 하니, 한림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로 쳐다보는데, 눈물이 몇 줄 흘렀다. 한림이 자신의 눈물이 땅에 떨어질까 염려하여 얼굴을 점점 높이 들었다가 잠깐 낮추니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다. 목사가 앞으로 나와 손을 잡으며 말하기를, “내가 이 길가 읍에 부임한 지 3년인데 아직도 포쇄관(曝쇄官)처럼 큰 눈물은 보지 못하였소.” 하고는 서로 손을 치며 즐겼다.³¹⁾

보는 바와 같이, 보다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지 못하였을 뿐이지 본격적인 정남훼절담 구조와 조금도 차이가 없다. 이 일화가 좀더 흥미롭게 구체화되고 해학적 성격이 더욱 가미되어 전형적인 정남훼절담으로 형성되는데 어우야담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³²⁾

30) 채세영과 이 일화를 기록한 권응인은 거의 동시대의 인물이며, 이 일화에 뒤이어 채세영을 사랑한 기녀가 “나이 80이 넘어 만력(萬曆) 임오년에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사실담인 것으로 믿어진다.

31) 權應仁, 松溪漫錄: 국역대동야승×Ⅳ, pp. 286-288

32) 어우야담에서는 채세영이 성주가 아니라 전주로 출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녀의 이름과 위장하여 속이는 방법들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 이야기는 또 동아휘집이나 기문총화에서는 채수의 이야기로 바뀐다. 蔡壽(1449~1515)와 蔡世榮(1490~?)은 서로 다른 인물인데, 혼란이 일어난 것 같다. 유몽인도 채세영의 이야기

그런데 이 일화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상충관료에 대한 하층관료의 여색 향응과 이로 인한 상충관료의 훼손 및 정치적 타락 현상이 정남훼절담이라는 흥미 중심의 문학적 구조물로 서서히 형상화되면서 야합을 거부하는 행위를 암시하는 ‘여색 배척’의 話素는 단순히 개인 윤리상의 문제로 그 含意가 전이되고, 상충관료의 정치적 타락을 문제삼는 일종의 풍자는 훼손·망신이라고 하는 해학적 웃음거리로 전이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 일화 이후의 여러 정남훼절 설화의 훼손대상자들이 보여주는 女色拒否의 행위는 일반화되어 있는 호색적 향락을 거부하는 행위로서 지나친 도덕적 경직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지게 된다. 또한 박일용이 적절히 지적하였듯이 당대 양반 관료의 일상적 향락과 경직된 유가이념 사이의 갈등을 반영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게 된다.³³⁾ 따라서 훼손대상자들이 하나같이 여색향락을 거부함으로써 이러한 가치 대립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할 수 있는 구조는 작품마다 마련되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 양상이 실제적으로 나타나 있는 경우는 명엽지해의 「妓籠藏伯」과 기문의 「感妓爲鬼」 두 편에 불과하며, 이처럼 설화에서 이미 마련되어 있는 대결구조가 더욱 발전적으로 새롭게 구조화될 가능성은 정남훼절 소설에서나 기대될 수 있게 된다.

4. 유형적 의미의 사회적 조응

정남훼절 설화의 형성에 있어서 그 존재론적 기반은 이미 조선 전기에 마련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확인된 자료만으로 볼 때, 과도기적 형식인 용천담적기의 일화나 어면순의 「아무함수」와 같은 일화를 거쳐서 정형화된 정남훼절 유형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말이나 17세기에 이르러서야 가능하게 된다. 즉, 전형적인 정남훼절담 구조를 갖춘 설화가 실려 있는 문헌설화집으로 편찬연대가 앞선 것은 16세기 말의 松溪漫錄과 17세기 초의 於于野談이며, 그 이후 17세기 후기로 추정되는

라 적고 있으면서, 마지막에서 “공은 기축년에 장원이 되어 바로 감찰을 했고 한림은 되지 않았는데,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반드시 전하는 소문에서 나왔을 터이니 아마 전부를 믿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公以己丑壯元 直拜監察 未曾爲翰林 此等云云 必於傳聞 恐未可盡信耶)라 하여 채세영을 1469년 기축에 장원한 채수로 혼돈하고 있다.

33) 박일용, 앞의 논문, 앞의 책, p. 94.

黃葉志譜가 대체로 빠른 편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19세기로 넘어선다. 물론, 문헌설화집의 찬술연대가 설화의 형성연대일 수는 없으나, 적어도 이들 문헌의 편찬연대를 통해 정남훼절담이 조선 후기 전반에 걸쳐서 상당히 인기있는 이야기거리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남훼절담 형식은 조선 후기의 전환기적 사회상황과 밀접한 맥락관계를 지니고 있었을 것임은 두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이들의 상호 맥락관계는 정남훼절담의 유형구조가 드러내고 있는 의미구조를 통해 해명될 수 있다.

전형적인 정남훼절담은 여색에 대한 지나친 도덕적 경직성도 타파되어야 할 관념이고, 심한 망신을 당할 정도의 지나친 호색적 향락행각도 또한 경계해야 할 것이라는 일종의 역설적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³⁴⁾ 지나치게 경직된 도덕적 관념이나 지나친 호색적 향락행각은 어느 쪽이든 도에 넘치는 편향성 때문에 현실적 균형 감각을 상실한 행위이다. 이처럼 정남훼절담은, 사회적 불균형을 초래하는 지나치게 경화된 유교적 도덕관념이나 유교적 질서 균형에서의 지나친 향락적 일탈행위라는 상반된 양극의 불균형을 모두 부정하고, 실제적 현실과 부응하고 균형을 이루는 실질적 가치를 표명한다.

유형구조가 보여주는 상반된 양극단의 부정은 한 현상이 역설적으로 그 반대현상으로 전환되는 변증법적 反轉에 의한 것이며, 이러한 반전은 부정에서 긍정으로 긍정에서 부정으로 전환되는 연쇄적 과정이다. 향락을 거부하는 정남의 관념적 경직성이 훼절음모에 의해 부정되고, 그 다음에는 정반대 상황으로 정남의 지나친 호색적 향락행각이 폭로되어 웃음거리가 됨으로써 또 다시 부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연쇄적 과정은 변증법적인 正과 反의 부정에 의한 상호절충적인 습의 추구하는 합리적 지향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양반관료들의 ‘자기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현실 모순의 반영³⁵⁾이라기 보다는 ‘자기조절의 형식’³⁶⁾이라 하는 것이 더 타당성을 지니는 것 같다.

정남훼절담의 유형구조가 보여 주는 이러한 변증법적 의미구조는 특히 17세기 이후의 사회 일반이 갖는 의식구조의 문학적 조응이라 생각된다. 17세기는 유학에서 禮學時代라고 부를 만큼 禮에 집착하는 풍조가 만연했었다. 이 시기의 禮는 통치의 방식이나 국가제도 및 기구의 제반 사항과 의례, 윤리 도덕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 등을 포괄하는 周禮에서와 같

34) 여세주, 앞의 논문, 앞의 책, p. 97 참조.

35) 박일용, 앞의 논문, 앞의 책, p. 96.

36) 김종철, 앞의 논문, 앞의 책, p. 222.

은 예가 아니라, 禮記나 儀禮 등에 담긴 바 개인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으로서의 예이다. 따라서 이 시대는 형식적이고 관념적인 사고가 만연되었고, 그 결과 당시 사회는 탄력성을 잃게 되고 硬化에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토록, 17세기에 예가 강조된 것은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사회 안정을 필요로 하는 당시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이해된다.³⁷⁾ 즉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조선조 사회는 전반적으로 개인의 유교적 윤리 질서가 극심한 상태로 무너지게 되었고, 그러한 현실적 혼란을 안정시키고 윤리성을 회복하는 데에는 예를 역설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17세기는 지나치게 예에 집착하고 예를 강조한 시대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윤리질서가 극도로 무너지게 된 시대라고 특성지워질 수 있다. 이처럼 유교적인 예의 강조로 형식적이고 관념적으로 지나치게 경화된 사회 의식과 유교적 질서에서의 극심한 일탈행위가 함께 만연하는 17세기에 전형적인 정남채절담이 나타난 것은 예사롭지 않다. 정남채절담에는 이러한 17세기 이후의 사회구조가 그대로 작품의 의미구조는 투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학사상이 태동되기 시작한 17세기 이후의 전환기적 상황에서 도덕적인 이상은 이미 사회현실이나 일상생활에서 동떨어진 공허한 관념의 헛기침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변화된 현실을 외면하고 도덕적으로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는 인물은 당면한 현실적 가치 앞에서 쉽게 공격과 웃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정남채절담에서 양반으로서의 위엄과 도덕을 고수하려던 정남이 그렇지 않은 또 다른 양반관료와 기녀의 음모에 의해 채절과 회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사회적 현상의 표징이라 하겠다. 이는 또한 유교적 덕목의 인습적 구속에서 벗어나 인간의 본성적 욕구를 긍정하려는 조선 후기 일반의 의식 표명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지나치게 경직화된 유교적 고정관념과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고 인간의 본성적 욕구를 긍정하겠다는 의지의 충돌이, 도덕적으로 충실하려 했던 정남과 그의 채절 주체자 사이의 대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색을 멀리하고자 했던 정남이 마침내 채절당하고 말았다는 것은 결국 본능적 욕구의 충동에 따를 수밖에 없음을 표명하고, 그를 채절시키기 위해 꾸며지는 하층관료와 수청기의 음모는 형식적 관념에 매몰된 정남의 도덕성이 허위일 수밖에 없고 공허한 관념적 경직

37) 17세기의 사회 현상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윤사훈의 “조선 성리학의 사회사상”(한국의 사회사상, 한길사, 1987)을 참고했다.

성일 뿐이라는 당대의 현실적 경험에 의해 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이 여성을 무조건 멀리 하려던 정남의 도덕적 경직성이 부정되고 있는 것은 인습적 관념을 파괴하고 삶의 현실성을 긍정하려는 의식이 강하게 대두된 17세기 이후 조선조 사회의 일반적 의식을 반영한 것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조선 후기 사회는 현실경험적 사실에 의해 인습적 관념을 파괴하고 삶의 현실성을 긍정하려는 의식이 대두된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유교적 질서가 붕괴되면서 그 부작용으로 야기된 정반대의 향락적 현실을 폭로하고 비판하는 역작용도 동시에 나타난다. 이러한 사회현상은 어느 한 쪽이 변화하면 그 반대상황의 다른 쪽에도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변환이 수반된다고 하는 현상의 변증법적 상호관계³⁸⁾라 할 수 있다. 대립적 가치의 평행적 연쇄관계는 조선 후기와 같은 전환기 사회에서 특히 부각되는 현상의 하나다. 그렇다면 여성에 대한 지나치게 경직된 관념을 부정하면서 동시에 그 부작용의 하나인 지나친 호색 향락도 부정해 버리는 정남체절담의 의미구조는 이러한 변증법적 이해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해명될 수 있다. 말하자면 지나친 호색적 향락의 경계는 관념적 질서의 붕괴에서 파생되는 퇴폐적이고 타락적인 현실에 대한 경계의식의 반영인 것이다. 유형원의 반계수록이나 정약용의 목민심서, 그리고 이공익의 연려실기술 등에서 나타나 있는 당대 양반관료들의 호색적 향락생활에 대한 실랄한 비판은 바로 유교적 질서의 붕괴로 야기된 부정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의 하나라 하겠다.

이와 같이 정남체절담이 보여주는 의미구조는 지나치게 경화된 유교관념이나 유교적 질서에서의 지나친 일탈행위를 동시에 부정하고 현실적 합리주의를 추구하는 조선 후기 사회의 의식적 단면을 반영하고 있다. 정남체절담이 특히 19세기의 문헌에 가장 많이 나타나 있는 것은 이러한 의식이 가장 팽배해 있던 당시 사회와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5. 결 론

본고에서는 정남체절담이라고 하는 하나의 유형이 어떠한 사회 현실을 그 존재론적 기반으로 삼고 있으며, 사회 현실의 어떠한 모습이 구체적

38) 프레드릭 제임슨, 변증법적 문학이론의 전개(여홍상, 김형희 공역, 창작과 비평사, 1984), p. 309참조.

인 형성원으로 작용하였는가를 살펴보고자 했다. 그리고 실제적 사회현상이 문학적 구조로 형상화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변화는 무엇이며, 그렇게 하여 형성된 유형적 의미 구조는 당시 사회와 어떠한 맥락관계를 지니는가 하는 문제를 해명하고자 했다.

정남채절 설화에는 지방 수령이나 지방에 임시로 파견된 중앙관료들의 수청기 제도로 인한 호색적 타락생활을 반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상은 이미 조선 전기부터 흔히 볼 수 있었던 현상이므로 정남채절 설화의 존재론적 기반은 조선 전기에 이미 마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정남채절담은 양반 관료들의 호색적 타락상을 형성배경으로 하고 있으면서, 구체적으로는 수청기를 멀리하며, 엄정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상층관료에게 베풀어진 하층관료의 여색 향응과 이로 인한 상층관료의 타락 현상이 직접적인 형성원으로 작용하였을 것임을 밝혔다. 여색을 거부하는 상층관료에 대해 수청기를 이용한 하층관료의 향응 내지 음모를 통한 임무 수행의 방해현상이 정남채절담이라는 흥미 중심의 문학적 구조물로 형상화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형성을 거치면서 부패한 하층관료와의 부화뇌동을 거부하기 위한 여색 기피행위가 단순히 호색 향락을 거부하는 개인의 도덕적 경직성을 뜻하는 것으로서의 의미 전이가 일어났다. 그리고 상층관료의 타락에 대한 풍자보다는 채절·망신이라고 하는 해학적 웃음거리로 변환되었다.

그럼으로 해서 전형적인 정남채절담의 유형구조는 여색에 대한 지나친 도덕적 경직성도 파괴되어야 할 관념이고, 심한 망신을 당할 정도의 지나친 호색적 향락도 경계해야 할 것이라는 일종의 역설적 의미를 표현하게 되었다. 사회적 불균형을 초래하는 지나치게 고착화된 유교적 도덕관념이나 유교적 균형 질서에서의 지나친 이탈행위라는 상반된 양극의 불균형을 모두 부정하고 실제적 현실과 부응하고 균형을 이루는 실질적 가치를 추구한다. 정남채절담이 보여주는 이러한 의미구조는 조선 후기의 전환기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의식구조와 그 맥락을 함께 한다. 즉 조선 후기에는 현실적 경험에 의해 인습적 관념이 파괴되고 삶의 현실성을 긍정하려는 의식이 대두된 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관념적 질서가 붕괴되면서 야기되는 부작용인 지나친 호색향락에 대한 비판의식이 대두된 시기이다. 따라서 이러한 변증법적인 사회현상이 정남채절담의 변증법적인 의미구조를 생성하고 정착시킨 것이라 생각된다.